

필리핀

◆ 필리핀, 경제상황에 대해 국제사회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는 필리핀 경제는 지난해 미국의 경기 침체 및 주변국의 경제상황 악화로 위축되었다. 그러나 금년 초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는 징후가 나타나자,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예견되는 등 필리핀 경제전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큰 필리핀으로서는 국제기구, 신용평가기관 및 수출신용기관 등의 지원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개발금융기관의 공적 지원규모는 점진적 확대

1999년 5월, 세계은행은 그 해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의 필리핀 국가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을 발표하였는데, 당시 세계은행의 지원 우선전략은 경제 회복, 빈곤 감축, 환경 개선, 인프라 개발, 민영화 추진 및 부패 척결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세계은행은 2000년 2월 필리핀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및 國道 개량을 위하여 2억 5,0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

는 개발이 낙후된 동부 지역의 도로 개선을 위하여 2억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금년 3월 11~12일의 제24차 원조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for the Philippines: CGP) 회의에서는 세계은행의 주관으로 2000년 6월에 이어 공적 개발 및 투자에 소요되는 28억 달러의 원조자금을 지원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은행은 필리핀 정부가 어려운 대외여건에서도 2001년 3.4%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 재정적자 완화, 물가상승 억제 및 환율 안정에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같은 자금지원 배경에는 필리핀 정부가 전력산업 민영화 등 구조조정 추진 및 빈곤계층의 생활수준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필리핀 지원전략(Country Operational Strategy: COS)도 세계은행의 지원전략과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경제성장, 사회보장 서비스 수준 개선과 환경 보호·관리를 통한 빈곤 감축 및 사회 개발에 역점을 두어 왔다. 2001년 말 현재 ADB의 對필리핀 대

(표)

신용평가기관의 필리핀 정부 신용도 평가 추이

| S&P | | Moody's | |
|-------------|------|-------------|------|
| 평가일 | 평가등급 | 평가일 | 평가등급 |
| 1993. 6. 30 | BB- | 1993. 7. 1 | Ba3 |
| 1995. 5. 30 | BB | 1995. 5. 12 | Ba2 |
| 1997. 2. 21 | BB+ | 1997. 5. 18 | Ba1 |

자료: Bloomberg.

출잔액은 183건, 78억 8,930만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에너지, 농업·천연자원, 사회 인프라, 교통·통신사업이 전체 지원액의 84.5%를 차지하고 있다. 1999년 말 자본시장 개혁법안 시행의 지연으로 ADB가 자금지원을 동결하였으나, 2000년 중 공공부문에 대하여 5억 1,500만 달러, 민간부문에 대하여 4,500만 달러의 대출을 승인한 바 있다. 2001~2003년 중 ADB는 16개 프로젝트에 9억 4,5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인데,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회환경 개선 및 빈곤경감을 위한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필리핀 정부는 1998년 3월 IMF의 13억 7,100만 달러 규모의 대기성차관 지원 승인에 따라 2000년 8월 말까지 9억 3,600만 달러를 지원받았으나, 재정수지 개선 및 경제구조 개혁 등의 IMF 지원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IMF의 추가적인 차관 지원이 보류된 상태이다. IMF는 2001년 7월 아로요 정부가 재정적자 확대,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효율적 재정 운용, 경제 개혁 및 빈곤 감축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S&P는 필리핀 政府債券의 장기외환 신용등급을 BB+, Negative로 평가하는 등 Moody's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투기등급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평가배경은 과중한 정부채무, 금융 유동성 미흡 및 취약한 금융산업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S&P는 필리핀의 에너지 산업 민영화 등 경제구조 개혁 추진 노력 및 외환 포지션 개선 등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제 수출신용기관, 긍정적 지원태도 유지

미국수출입은행(US EXIM)의 Country Limitation Schedule(CLS)에 따르면, 對필리핀 수출 지원과 관련하여 차입자 및 차입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US EXIM의 금융지원은 장기적으로는 전력, 통신 및 교통산업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소비재, 부품, 원자재, 농산물 등에 대하여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차입자별로는 공공부문에 대하여 지원할 경우 대개 재무부의 지급보증을, 민간부문 지원시 적격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일본수출입은행(JBIC)은 2001년 4월부터 1년간 필리핀 개발은행에 IT 산업 등 민간부문 육성을 위하여 325억 엔을 한도로 하는 언타이드론을 지원키로 승인한 바 있다. 또한 JBIC은 2001년 5월, 필리핀 정부에 대하여 빈곤 감축 및 환경 보

호를 위한 9개 프로젝트에 대하여 546억 4,200만 엔 한도의 공적개발차관(ODA)을 지원키로 승인하였다. JBIC의 ODA를 통한 차관 지원정책은 경제구조 강화 및 성장 저해요인 극복, 빈곤 감축, 지역 균형발전, 환경 보존 및 재해 예방, 인력 개발 및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 신용보험회사(Hermes)는 對필리핀 수출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부보정책을 펴고 있는데, 부보한도는 제한이 없으며 프로젝트당 부보한도는 2,500만 유로로 운용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 또는 적격보증은행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 및 중장기 보험인수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 없이 부보가 가능한 상태이다. 2001년 6월 말 현재 Hermes의 對필리핀 누적 부보액은 30억 유로로서, 필리핀은 전체 부보실적 제10위 국가에 해당된다.

프랑스 무역보험회사(Coface)는 필리

핀의 국가신용도 등급을 7단계 중 중간 단계인 A4로 분류하고 있다. Coface는 필리핀 경제상황에 대하여 투자등급의 최하위 단계로 평가하면서, 미국의 경기침체 및 전자산업의 위축으로 수출이 부진하였으나 농업생산 호조 및 내수 진작으로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벨기에 신용보증공사(OND)도 對필리핀 수출 지원시 중장기 비상위험도를 Coface와 유사한 중간 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OECD 사무국에 보고된 수출신용기관(ECA)과의 거래관계와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필리핀 기업의 對ECA 연체율은 2001년 12월 말 현재 7.2% 수준이며, 리스케줄링된 채무는 거의 상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曹暢鉉】